ISSUE BRIEF

이슈브리프 통권135호
(2019.7.1)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의 의미와 성과

제135호

이 상 근 안보전략연구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INSS
www.inss.re.kr

판문점 북미 정상 회동의 의미와 성과

이 상 근 (안보전략연구실)

역사적 의의가 큰 사실상의 정상회담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공식 정상회담에 못지 않은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 우선, 북미 정상이 한반도에서 가진 최초의 만남이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잠시나마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지역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이 만남은 또한 미국과 북한이 66년 전 정전협정을 체결했던 장소인 판문점에서 이루어졌다. 판문점은 남북 분단 뿐 아니라 북미 대립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사실상 미군으로 구성된 유엔사 측과 북한군 측은 수십 년 간 군사정전회담장에서 대립했으며 판문점 전역에서 폭력적인 충돌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1976년 8월에는 미루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하던 미군 장교 두 사람이 북한군에게 살해당하는, 이른바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여 한반도가 전쟁 위기에 빠져든 바도 있다. 이후 판문점은 공동경비구역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무장한 유엔군과 북한군이 대치하는 지역이 되었다.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미국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북미관계사가 화해와 평화의 역사로 전변하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본다.

두 정상의 비공개 대화가 한 시간가량 이어져 사실상의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는 점도 큰 의미가 있다. 미국과 북한이 두 차례의 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겪은 우여곡절을 생각하면 판문점에서의 비공식 회담은 갑자기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두 정상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조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끝장내고 극적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한 방도적인 문제들과 이를 해결함에 있어서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우려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였다. 이 보도를 통해 두 정상이 공식 정상회담 못지않게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식 정상회담을 능가하는 세계 언론의 주목을 끌기도 하였다. 특히 코언 청문회

때문에 관심이 크지 않았던 하노이 정상회담과 달리 미국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회담 결과에 대한 각국 언론의 평가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격의 없는 비공식 대화로 실무협상 재개 합의 도출

자유의집에서 있었던 단독회담의 경우 처음에 약속된 시간이 5분가량이었고 비공식 대화였기 때문에 정해진 의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두 정상은 어떤 제약도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대화가 하노이 회담 결렬로 인해 더욱 커진 상호 불신을 완화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본다. 나폴레옹전쟁 이후 유럽에 장기적 평화를 가져다준 유럽협조체제는 빈에서의 공식 회의들 뿐 아니라 수많은 파티들을 통해 탄생했다는 평가가 있다. 격의 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비공식 모임이 서로를 이해하고 합의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다. 분쟁 해결 전문가로 이름 높은 윌리엄 유리(William Uri)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하급 참여자들이 회담장 밖에서 나눈 대화를 통해 협상 타결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점에서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일부의 비판처럼 사진이나 찍는 이벤트가 아니라 북미관계를 풀어갈 방도를 찾기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솔직한 대화는 북미협상 교착상태를 깨고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는 소중한 성과로 이어졌다. 회동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북한이 “각각 대표를 지정해 포괄적 협상을 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합의에 따라 2~3주 내에 실무협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하였다. 하노이 정상회담이 이무런 합의도 없이 끝이 난 뒤 북한은 협상 시한을 연말까지로 못 박으면서, 미국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남한의 중재 노력마저 거부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근래에 미국이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등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였으나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인사나 나누겠다던 두 정상 간의 비공식 만남을 통해 북미는 협상 재개에 합의한 것이다.

북한이 입장을 바꾼 것은 판문점 회동을 통해 손상된 체면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대화를 재개할 명분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다. 성공을 장담했던 하노이회담 결렬로 김정은

위원장이 입은 정치적 상처는 작지 않았다. 무오류의 존재인 수령이 직접 협상에 나섰다가 미국의 최고지도자에게 농락을 당한 격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협상 시한을 제시하고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한 것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압박일 뿐 아니라 상처 입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이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미국과의 협상을 포기할 수도 없었기에 북한의 고민은 깊었을 것이다. 연초부터 언급해 온 새로운 길은 고난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핵을 보유한 채 중국, 러시아 등에 기대어 버텨나갈 경우 경제제재의 지속 또는 강화를 피할 수 없다. 다시 핵실험이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다면 미국의 군사공격, 나아가 전면전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제시한 연말이라는 시한은 북한 스스로를 옥죄는 사슬이 되고 말았다. 진퇴양난의 고비에서 친서 교환을 통해 상황을 반전할 기회를 모색하던 북한으로서는 인사나 나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이 어둠 속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을 지도 모른다.

한국의 중재 역할 재확인

판문점에서 남북미 3국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난 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3자회담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세 나라의 정상들이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한미 대 북한의 대치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장소에서 함께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라는 공통적 지향을 확인한 것은 매우 큰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더욱이 이를 통해 한국의 중재자 내지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재확인되었다.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한반도로 불러들인 것도,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북미관계 개선을 돕기 위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것도 한국 정부였다. 북미 정상 간 단독회동이 이루어진 곳도 군사분계선 이남의 자유의집이었다. 북미 두 정상의 옆자리를 지킨 것도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근래에 미국이 유연한 접근과 동시적·병행적 진전을 표방하게 된 데에도 한국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중재 및 촉진하는 한국의 역할은 분명하게 재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북한의 대남선전 매체 등이 남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표명할 수 있겠으나 판문점이 아니었다면, 남한의 협조가 없었다면 북미 간의 급작스러운 만남이 성사될 수 없었다는 점은 북한 당국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북미 간 불신이

심각하고 북미대화도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혼자만의 노력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풀어나가기는 어렵다는 점도 절감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 측 인사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북한의 입장을 설명하는 역할은 미국과의 관계가 깊은 한국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 평양에서의 북중 정상회담 이후 일부 인사들이 중국이 중재자로 나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으나 미국과의 경쟁 및 갈등이 치열한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남북관계에도 긍정적 영향 예상

판문점 회동은 하노이 회담 이후 사실상 멈추어 있는 남북관계를 다시 진전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오늘날의 남북관계 답보 및 후퇴도 북미관계 교착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러므로 북미협상이 진전된다면 남북관계도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이 남한의 역할을 비판한다고 북미협상을 도우려는 노력을 중단하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미 간 실무협상이 재개되더라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불신,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 대북 상응조치 제공에 대한 주저는 여전히 클 것이며, 이는 북미협상 진전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남한 정부와 전문가 집단이 북한의 입장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전달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고려하면서 북한의 요구도 상당히 수용한 중재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기울인다면 북한의 남한에 대한 신뢰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본다.

판문점에서의 북미 정상 간 회동 자체가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발전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 실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제의한 북미 정상의 만남이 바로 다음날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9월 평양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가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이 합의서에 따라 지난 10월에는 JSA 내의 지뢰 제거와 화기, 탄약, 경비 병력 철수가 완료되었으며 유엔사, 한국군, 북한군 3자에 의한 검증도 이루어졌다. 그 결과 판문점은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완전한 비무장지역으로 바뀌어 있었다. 더욱이 판문점에서 이미 두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수리 및 안전 점검 등이 이루어져 있었으며 경호와 의전에 관한 경험도 축적되어 있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면 미국 대통령과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에 대한 실무적 합의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선물처럼 이루어진 사실상의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헛된 일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